

사랑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개척 이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 66권의 말씀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 온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 ...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치료받아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까지.

“만민에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뇌종양을 치료받고 목회자가 된 조수열 목사와 참 교회를 만나 감격스럽다는 에스토니아 류드밀라 목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696호 2015년 7월 2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개척 33주년을 맞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관영해 무엇이 진실이고 허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 경작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사랑의 메신저로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셨다. ‘만민’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과 함께 교회 개척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이다.

1982년 7월 25일, 열 밤 낭자한 성전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개척 33주년을 맞았다. 33년 만에 전 세계 1만여 자립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현재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www.gcntv.org)과 60개 언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www.wcdn.org)과 MIS(만민국제신학교) 등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펼치고 있다.

### 성경 속의 역사가 재현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빠른 부흥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각처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성경 속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며 놀라워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시 62:11) 하신 대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으로 개척 때부터 말기 암, 연탄가스 중독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권능의 역사는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걸으며 에이즈 같은 불치난치병이 치료되는 등 날로 커져왔다.

미국 뉴욕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비롯해 우간다, 파키스탄, 온두라스, 인도, 독일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해외 연합대성회에서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사와 표적, 권능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놀랍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에는 신종 플루와 현지 언론에서 요청한 기쁨 해갈을 위해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주자 신종 플루의 확산이 멈추고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2014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주지사의 기도 요청으로 이 목사가 기도해 준 뒤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가 종식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바 있다(3면 참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처럼(행 2:46) 우리 교회 또한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진행돼 성전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GCN 방송으로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이 자신의 성결과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일 대예배, 저녁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까지 성전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

을 비롯 남녀노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총명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 개척 이후 33년 만민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애매하고 난을 받아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으로 이겨내니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났다.

무엇보다 교회 개척 33주년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온 영의 흐름 가운데 성결의 오종복음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만민중앙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가득하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마지막 때의 섭리를 힘차게 이룰 것이다.

한편, 7월 26일 주일 저녁예배는 개척 33주년 기념예배로 드리며, 축하공연이 약 30분간 진행된다. 예능위원회의 찬상소리선교단, 찬상무용팀, 파워워십팀 등 7개 팀이 출연해 찬양과 워십, 부채무용 등으로 만민의 사역을 통해 영광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올려 드린다.



**4. 말씀에 따라 이뤄 온 만민의 사역**

1998년, 1999년의 교회적인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예고해 주셨고, 믿음으로 통과할 때 빛의 속도로 축복이 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직 기쁨과 감사로 그 험난한 날들을 이겼을 때 결국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은 세계로 향해 열린 문이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성회를 명하셨고, 매 성회마다 갈수록 커지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했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수한 사람이 갖

지 질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는 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3년간의 이스라엘 선교는 2009년 9월,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귀하리라는 성경 예언을 성취하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극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해외에서 성회 요청이 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무조건 갔습니다. 성회를 도울 인력과 재정이 없어도, 테러의 위협과 법적인 압박에도 개의치 않았지요.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면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열매를 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히 영광을 받으셨지요.

**5. 온 영의 흐름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2000년 이후 제2도약기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대형 연합성회를 이루고, 3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전 세계 만민이 신부단장에 합할 수 있도록 2010년을 맞아 제3도약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2010년 12월 25일 성탄절 이후, 저는 범죄한 영혼들을 위해 죽음과 같은 인내와 희생

2012년에는 믿음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공의를, 2013년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만드는 공의를 채웠지요. 그 결과 2014년 3월 31일 영의 평준화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3도약기를 통해 먼저 이루신 것은 바로 영의 평준화라는 흐름이었지요. "새 예루살렘 성을 채우라!"하신 대로 영과 온 영의 자녀들이 충분히 나와야만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성전, 대성전도 지을 수 있고, 세계 선교도 창대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애절함 속에서 다시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2015년 '영광의 해'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나는데, 각 사람의 영광은 각자가 스스로 채운 공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앞드려 기도하고 누가 더 기도로 하나님 능력을 끌어내리는 자에 따라 하나님께서 목자의 공간에서 보장하시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 영살전 523의 흐름도 합당한 공의의 값을 치르므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식년이지만 영혼들을 위해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희생의 대가로 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영의 흐름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영으로 나오게 하시며, 더 깊은 영과 온 영으로 나오게 하시는 데는 바로 재창조의 권능이 100% 완성될 때 함께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룰 영적 장수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02 인도 연합대성회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며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 ▼ CNN에 '2000 우간다 연합대성회' 실황 방영, '2004 페루 연합대성회' 시 페루 전 대통령과의 환담, 무수한 치료 간증 등 매 성회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영의 혼련 속이 빠졌다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주의 종과 레위족, 성도들의 회개 사건들은 제 생명을 불살라 공의를 채우게 만들었지요.

이로 인해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회복됐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 자녀'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한편 저는 성도들이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채워야 할 공의의 90% 이상을 대신 채우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1년에는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기 위한 공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뤄집니다(민 23:19). 온 영의 흐름 가운데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루며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년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후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p>“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신중 플루 확산이 멈추고 큰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를 받은 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가 종식됐습니다”</p> <p>이스라엘 다니엘 로젠 대사      콩고민주공화국 세바스찬 임페토 펠로 주지사</p>	<p>“폭우로 인한 호주 브리즈번 강의 범람을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팔 대지진의 재난 속에서도 기도를 받으니 만민선교센터와 196개의 자협력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p> <p>호주 미카 쿠퍼 박사      네팔만민센터 이혜천 목사</p>
---	---



가나안성전 조감도

<p><b>2015 AUGUST</b> 2015.07.26~08.01</p> <p><b>주요 프로그램 안내</b></p>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옥 12-13    선</li> <li>사랑장 1-3    예복 4-5</li> <li>3차 영혼육 1-4    축복 7</li> <li>알금교회 11-14    육과 영</li> <li>요한계시록 강해 4-7</li> <li>요한일서 강해 31-37</li> <li>성령의 9가지 열매 5-9</li> </ul>	<p><b>GCN TV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교 1   이수진 목사</li> <li>고만 1   이미영 목사</li> <li>생명과 평안   이미영 목사</li> <li>근본 마음   이희선 목사</li> <li>윤기 강해 18   신동호 목사</li> <li>MIS강의 39   정구영 목사</li> <li>목자의 마음   천우진 전도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콩달콩 어머똥 율동 40</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9</li> <li>옛날 옛적에 7    English 2</li> <li>즐거운 요리 3    내 마음의 찬양 15</li> <li>흥겨운 소리 7    창조와 과학 12</li> <li>모두 드려요 32    뷰티풀라이프 13</li> </ul>	<p><b>해외성회 및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연합대성회 2</li> <li>회상 20</li> <li>어름성경학교 아동예수제 (생방송)</li> </ul> <p><b>GCN HD 채널</b> <b>kt alleh tv 882번</b></p>
---	--	--	--	---

# “뇌종양이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조수열 목사 (51세, 2대대 대교구장)



1984년 7월, 저는 ‘비인강 혈관 섬유종양’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서 8시간에 걸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재발돼 코가 막히고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으며 종양의 뿌리가 뇌까지 퍼져 뇌종양으로 발전했습니다.

1985년 1월, 의대 재학 중이던 저는 어머니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요. 그해 6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으로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여 차례 많은 양의 피를 쏟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도처에 계시던 당회장님께서는 제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판단을 받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요.

저는 문서선교를 담당하는 편집국에서 말씀 무장을 하며 질병이 온 영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모태 신앙인에도 방탕하게 살아왔을 뿐 아니라, 부모와 조상의 죄에 대한 보용으로 인함이었지요 (민 14:18). 더욱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술 담배를 하시던 저는 바로 코피를 많이 쏟았고, 아버지가 급식하며 회개하셔야 코피가 멈추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셨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애통하다가 주의 종으로서 결단하게 됐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부모님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부 지도교사를 맡았을 때는 제 몸이 너무 약해 사명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주의 종이 양 떼를 맡아야 힘이 나지” 하시며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지요. 저는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 보으며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21일, 30일, 40일 금식 등 무수한 금식 기도

를 쌓아갔습니다. 결국 영적인 끈이 끊어져 몸의 연약함을 깨우기 치료받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구장에 이어 대교구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11년 7월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분별하려다가 오히려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예 분별하지 않으려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와 용서, 사랑보다는 판단 정죄가 앞선 것을 깨우치며 중심으로 회개했지요.

2013년 초에는 기도 중에 저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저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시면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목자의 모습이 떠올라 오열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겸비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했더니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지요.

저는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값진 언단을 통해 얻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변화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태국 성도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악교회 성도들과 청림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류드미라 목사 (에스토니아 은혜교회 담임)

2010년, 에스토니아 기독교 방송인 라이프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단 그림을 배경으로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매우 새롭고 감동적이었으며 영적인 깊은 차원의 말씀이 흥미로웠기에 저는 노트에 기록하며 경청했습니다.

그해 10월, 우연히 길에서 포스터를 보았는데 이재록 목사님께서 에스토니아에 오셔서 성회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뭇 듯이 기뻛고, 마침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듣게 돼 강사님과의 만남에도 참석해 말씀을 듣고 약속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사람들이 기독교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별로 집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 초청 에스토니아 연합성회’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석해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웠지요. 저도 성도들과 함께 성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비롯해 공연 등 모든 것이 영성 깊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특히 단 위에서 감사 이재록 목사님께서 전체를 위한

한자 기도를 해 주실 때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은 감동 자체였지요. 또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 감사님께로부터 나와서 제 몸에 임하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회 후에도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님(전리의 근원교회 담임)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들과 만민중앙교회 선교지 ‘만민뉴스’를 읽으며 가장 좋은 천국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현숙 전도사님(벨기에 에노만민교회 담임)을 통해 만민의 사역에 관해 더 밝히 들으며 사모하게 됐지요.

그러던 지난 6월 24일,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튿날, 저는 성령 충만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대로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 기도회, 그리고 기관장 교육까지 은혜와 감동이 넘쳤지요.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타에도 방문해 하나님 권능의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의 목회자 이재록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사모한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남동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를 3만길 64 ☎031652-3981, 010-3276-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광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시흥민교회 충남 개령시 금림로 135 ☎042924-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청북도 청주시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1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호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말연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민교회 경남 사천시 차령동 산전길 17, 2층 3호 ☎055352-5915, 010-9196-9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84번길 28, 5층 ☎05526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4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1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9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사해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3 ☎0611625-8311, 010-2325-1228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310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정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명동2길 6, (3층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이로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1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6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행3길 11, 3층 ☎033641-3799,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15-0675, 010-2468-2251
- 복주시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8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선유동 22, 운행빌딩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8, 아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평행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릉지성전 세종시 강릉구 영제로 1508, 휴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평행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세종지성전 세종시 강릉구 영제로 1508, 휴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강도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8, 아람/D ☎031905-2419, 010-2276-1014
- 경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강원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